

第 80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7. 9. 9. ~ 9. 1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總會以委自部社情息目目委

本會籌會總編

(一九一一年一月)

會員委實總編非爾恩

목 차

1997 • 9 • 통권 제55호

I. 개회식	3
II.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49
2.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51
3. 양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	6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9월 9일 (화요일) 11시 02분

開會式順(第8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11시 02분 개식)

● 의사과장 이흥무

지금부터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 회 사

(11시 03분)

● 의장 김광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강한 모습을 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하

[제80회-개회식]

여 주신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후반기 임기중 첫 임시회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후반기에는 보다 알차고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전 우리는 교육위원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다짐을 다시 생각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의있는 회기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가 후반기 의장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용무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6분 폐회)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9월 9일 (화요일) 11시 06분

議事日程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4.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교육감 제출)
5.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제80회-제1차]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8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7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7-9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7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9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 09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기에 과장급 이상의 인사이동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청으로 전입한 국·과장에 대한 인사는, 두분 나오시죠.

(초등교육국장, 초등교직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함)

초등교육국장에 청주교육청 학무국장으로 계셨던 민병구장학관이 부임했습니다.

초등교직과장에 청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맡았던 송병식장학관이 부임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초등교육국장, 초등교직과장 자리로 돌아감)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새 의장단이 구성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제80회 임시회에서 그간의 '97년도 본도 교육시책 추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고장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계 인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신교육 체제는 아시다시피 지구촌의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발전 전략이며, 교육개혁 없이는 세계 인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마련된 것으로 본도 교육은 이와 같은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고 150만 도민의 교육의사를 결집하여 교육가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내일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2세 교육 충북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받치자는 것입니다.

본인은 충북교육의 도약과 비상, 발전적 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체험적 인성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인간교육의 기본이며 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지난 3월 학년 초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바른 인성교육은 오늘의 전도된 가치관과 실추된 도덕과 윤리를 바로잡고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급학교는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심도있게 구현하고 가정과 사회의 교육진흥을 확대하며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된 16개교를 첨차로 늘려 운영하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회 개최와 논문집 발간을 추진하며,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학생의 심성 수련교육의 강화와 기본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가모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추방과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해 학교폭력 추방대책반을 설치 운영,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도청, 검찰청, 경찰등 각 기관의 협조로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하겠지만 이는 조금만 단속이 해이해지면 다시 나타날 잠재적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학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제80회-제1차]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폭력추방에 각별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장의 학교상주제도를 정착시키고 각종 학생 사고예방과 원활한 면학풍토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학년초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를 순방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벽지학교에도 순방하였으며, 비록 낙후된 환경, 열악한 시설이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지원과 대책만 가해 준다면 벽지학교 문제는 물론 도·농간의 격차 해소 등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무성 있는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적 체제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자율성을 토대로 마련하기 위한 교단 우선 교육행정 지원체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교육체제는 본질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체제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96학년도부터 지침대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토록 추진하였으며, 학교 자체의 현장화를 다질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는 읍소재지의 학교까지 확대하여 현재는 275개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98년까지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면 실시를 이룩하여 주민의 교육 의사를 수렴하고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지역학교로 육성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운영 평가제도는 학교의 입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형식과 내용을 선별, 과감히 개선하였고, 교육감과의 대화 및 충북교육 PC통신 열린마당을 통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의 민주화 기능에 일조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로 질높은 교육,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교육으로 미래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한 열린교육 수준별 학습을 확산하고 다양한 학습, 개별화된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도 교육용 컴퓨터 2,317대, 교원용 컴퓨터 1,058대를 계획대로 공급케 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18억을 투자하여 멀티미디어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어학실도 새로 17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입제도의 개선과 보충자율학습의 효율

화에 각별히 힘쓰고 있으며, 교당·급당 예산의 확대, 업무전산화 추진, 원어민 강사 초빙 등 학생 교육의 질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순조로운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의 추진,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전과 시설확충, 청주, 충주지역 학생수용대책을 위한 초·중학교의 신설 등 충북교육의 기초를 닦기에 각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의 수준별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방학 중에는 자율학습의 폐지와 중학교 1,2년생은 보충학습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돌려주고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실을 현대화하고 교단의 선진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성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교와 교실을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시책을 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교단 선진화를 위해 질 좋은 첨단교육 기자재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단가입찰제를 지속 정착시켜가고 도교육연구원에 신설된 교육자료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에 가일층 힘쓰며, 교육방송의 청취와 교사의 선진화를 위한 단재교

육원과 교단지원관, 충북상고 컴퓨터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의 강화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교육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개혁은 4차에 걸쳐 120개 사업의 각종 시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도에서는 75개에 걸친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을 교육개혁의 현장화, 가속화, 그리고 열린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신교육체제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학교 현장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현안들이 여러 위원님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선진화된 충북교육을 기필코 이룩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충북 인재육성에 부여된 소명과 책임을 다해 갈 것입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 편달을 늘 가슴에 담고 작은 의견에도 귀기울이며, 신뢰와 화합속에 비상하는 충북교육의 참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큰 성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는 교육위원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국별로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

[제80회-제1차]

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구관서

부교육감 구관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는 의당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보고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그리고 관리국 소관 사항은 각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네가지 교육시책 구현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 운영을 통해서 금년 1월, 9일만에 걸쳐 12개 교육청을 순방하면서 당해 지역의 교육위원님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여하여 교육현장의 현안 과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였고,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역할 제고 등을 논의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등 총 3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셋째,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을 교육개혁 가속의 해로 정하여 교육개혁 실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수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 교직원, 학부모들의 참여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 발표된 총 120개 교육개혁 과제중 75개 과제를 선정, 금년까지 5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개혁 가속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연수회, 세미나를 314회 개최해 31만 6천여명이 참여하였고, 40여종의 홍보책자를 발간·보급하였으며,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육개혁을 홍보하는 한편, 교직원, 학부모 등 136명으로 구성된 충북교육 모니터링제를 운영 교육개혁 추진을 포함한 충북교육 전

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4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주요과제 추진사항으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율 시범학교 1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 학생상담 및 봉사활동, 학생수련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75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첨단 어학실을 설치하였고, 초등 특수학교 3학년 전학급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기록부제를 '96년도부터 전면 적용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중·고등학교 선택권의 부여와 국·공립학교 시설 등을 평생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행정 명령과 법규 문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현장방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9월 말쯤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 분위

기 조성을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97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면 및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활용함으로써 내년도에 예정된 교육부 평가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의 기본방향은 주요 사업 및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감사대상 30개 기관과 부분 감사 6개 기관,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 58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 감사요원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시 계획으로는 종합감사대상 14개 기관과 부분 및 공직기강 감사, 자체 감사요원 전문능력 제고, 감사결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규제 완화 추진 업무입니다.

교육규제 완화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교육에 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위원을

[제80회-제1차]

위촉하여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훈령, 지침 등 행정명령 준비를 위해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대상과제 234종 373건을 상정하여 전문폐지 115종 160건, 일부 폐지 및 완화 3종 7건, 전문존치 116종 206건을 확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규칙 등 법규문서 준비를 위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 43건, 규칙 38건 등 총 81건을 심의하여 8건을 폐지하고 1종은 일부 완화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번째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5건,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2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이며, 행정소송으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1건 등 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9건의 소송중 주성중학교 학생체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 2건은 종결된 바 있으며,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외 5건은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번째,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은 기관 간의 교육 행정업무 관리를 위한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서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행정 전산망의 추진 구축은 도내 초등학교까지 산하 566개 전기관을 대상으로 24억원을 투자해서 초고속국가망 제공 전용 회선으로 광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신망 설치회선은 본청과 충북대학교간 128K 1회선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 전산망 대상교 중 22회선은 56K로,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간 529회선은 9.6K로 설치를 하고 회선교환 장치인 라우터 11대와 회선중개장치인 통신서버 14대를 도입하고, E-Mail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97년 11월 1일부터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자료 제공 현황은 자체 전산망으로 교육계시판에 7종을 제공하고 교육정책 안내외 12종은 청주지역 종합정보센터망인 체인스로 제공하며, 교육종합정보망인 에듀넷으로는 중학교 국어외 18종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각급학교에서 인터넷 및 에듀넷과 연동시켜서 교육 관련자료를 취득 활용함은 물론이고, 전산

망에 의한 공문서 수발 및 공용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첨단 교육관련 자료 활용으로 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초·중등 및 관리국 소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초등교육국장 민병구입니다.

초등국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처음 뵙는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교육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책무의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갖춰진 바 능력이 부족하여 맡은 바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지 마음 무겁고 걱정이 되는 바가 큼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 의사로 결정해주신 사항들, 우리 교육시책구현 차원에서 교육일선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개선토록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장학과, 교직과 소관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열일곱 제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고 열린교육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일선 교단을 돕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전반기에 11개 교육청과 22개 관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후반기에도 9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선진 열린교육을 확산하고 우수 교사 및 우수 학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열여덟 쪽의 두번째, 교육과정 교과연구회 활성화에 관하여는 교사의 자질향상과 교과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교과분야에 9개, 시책분야에 6개, 도합 열다섯개 분과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1억 5천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추진, CD롬 타이틀 제작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연구발

[제80회-제1차]

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공 교원을 표창하고 연구실적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아홉째 쪽, 세번째 사항입니다.

교단선진화 2차년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중심의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열린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단선진화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범학교 25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각급학교마다 1개 학급씩 모범학급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우수 시범학교 공개보고회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교단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교단선진화 지원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로써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아가모운동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시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이 계셔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 이 아가모운동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청과 자원재생공사 등의 많은 기관과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얻고 있으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21쪽에 있는 여섯번째,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교장, 교감 연찬회는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일곱번째 있는 통일안보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안보정신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상당한 역사를 가진 행사로써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적 계획 말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의 여덟번째, 수업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우수교사를 발굴 표창하여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학교대회에 이어서 지난 5월에 교육청 대회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된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9월 중에 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상 교사에게는 연구실적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아홉번째,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설명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학기에 보고를 마친 8개 학교의 운영보고에서 전국의 회원과 교육부 임석관님들의 극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머지 65개교에 공개보고회를 후반기에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쪽에 열번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영어교과가 정규교과로 편성이 돼서 3학년 어린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으나, 교육부는 물론 본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영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는 물론, 교사연수, 장학자료발간, 학부모에게 수업공개, 영어교육연구회 활동 등으로 초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의 열한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보충수업, 교육의 기회제공, 바른 인성 함양,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94년부터 실시해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학교에서 교사들의 지도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율연수

에 힘쓰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준높은 지도를 위해서는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 등 지도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7쪽의 열두번째, 학교운영 실적평가 계획에 관해서는 후반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계획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에 열세번째, 유아교육 장학활동은 유치원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전반기에 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 유치원 장학협의를 마쳤고, 후반기에도 나머지 6개 지역교육청과 관련 유치원이 장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번, 도지정 시범유치원 운영에 관한 설명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15번, 유치원 교사 창작자료 전람회에 관해서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창의적인 교재·교구 개발을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개 지역권에서 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적극 제작비 지원을 해주는 등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30쪽에 16번, 코기호넷(Co-KiHo-Net)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기호넷 운동이란 유치원의 교사와 원아,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가 네트워크를

[제80회-제1차]

형성해서 운영하는 최상의 유치원 교육여건, 또는 교육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특수교육 분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중도 중복 장애자들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도, 또는 중복 장애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인 좋은 인상으로 전파가 예상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청주의 나눔의 집에는 청주에 있는 성덕 학교에서 교사가 1명, 또 충북희망원, 사랑의 집, 오창 자모원에는 청주혜화학교에서 교사 3명을 배치하여 재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의 열어덩번째, 제16회 장애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해서는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 두번째, 핸듀토피아(HANDUTOPIA)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듀토피아는 모든 장애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낙원을 건설하자는 시책으로 본도의 각별한 시책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전반기 평가 때 극찬의 평을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지망하는 466명 전원을 입학시켰고, '97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을 100%를 취업시켰으며, 청주농고의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15개 실에 학습도움실을 설치하고 152명에 2개교에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낙원 건설의 길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초등교원 임용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임용은 객관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인사, 투명성을 지향하는 공정한 인사, 효율성을 추구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장 증임 및 승진 임용을 77명, 교감승진 임용을 31명, 교사 신규교사 245명, 유치원교사 30명, 교육전문직 19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에 말씀드린 세가지 기본방향을 엄격히 준수해서, 그리고 수요를 예상해서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교육유공자 포상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금년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에 관한 사항도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교원연수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의 현직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격연수의 7개 과정에서 268명, 일반연수의 10개 과정에서 623명, 국외연수 5개 과정에서 56명, 직무연수 10개 과정에서 317명, 석사과정 특별연수 34명 해서 전반기에 1,298명 연수를 받았습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823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관계로 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중등교육국에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을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 제약상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쪽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장학활동 중등국에, 총 대상교 75개중 상반기에, 우리 전반기에 60개교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되어서 열린학습, 수준별 이동수업,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생활지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은 지도 조언을 해왔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충북교육의 4대 중점시책에 첫번째 가는 항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지적이나 관념적인 인성교육 방법을 탈피하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실천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학교급별 시범학교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생활습관 기르기 국민질서의 추진, 경로효친의 실천,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형성, 수련활동의 실적들을 유인물로 열거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교육감님과의 대화는 일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1월 중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대화, 42쪽입니다.

2월 14일 교원과의 대화, 5월 30일 학생과의 폭넓은 대화를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된 것을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80회-제1차]

고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은 고등학교의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교과 13개 교과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중·고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금년 6월 20일 제8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충북예선대회를 가진바 있고, 9월 30일 제5회 중학생 영어 학력 경시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학교 10개교에 첨단어학실을 설치하였고, 금년 7월에서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등 45명, 중등 30명 미국의 치코대학에서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원어민 28명이 초청되어서 순회지도 학교를 포함해서 57개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성교육방송이 8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본도에서는 수신 장비에 대한 제반 점검과 갖추는 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갖춰서 활용되는 일, 정규 수업이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위성방송이 활용될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연수 회의 등등을 가진바 있고, 일선학교의 학교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강력

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자율학습 문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희망학생, 희망교사에 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교 실정에 맞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97년도 수업연구 발표대회, 교수학습 학습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261명 1차 서류심사에서 119명을 합격시켰고요, 그 119명에 대해서 수업을 심사하였고, 그 수업을 심사한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1년동안의 학습지도안을 제출토록 해서 3차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습지도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번째,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중등의 경우 교과 관계는 7개 분야였습니다.

국어 중·고, 영어 중·고, 수학 중·고, 과학까지 7개 교과영역, 또 학교 교육개혁 과제가 4개영역, 교단선진화, 열린교육, 방과후 교육, 진로, 상담 해서 11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97 학교폭력 추방 추진, 이 폭력의 관계는 학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금

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47쪽에 있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소재지 상주를 통한 학생지도 체계 강화 및 생활지도 철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추방대책 기구 설치운영, 유관기관과 월 1회 합동지도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추진,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활동,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 및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학생문화 거리 축제 5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안내 포켓북 6만매 제작 중·고1학년 전원에게 배포, 학생 자율선도반 운영으로 또래 상담을 통한 사랑의 대화 나누기 운동 전개, 생활담임제를 통한 사제 동행 극기, 봉사, 수련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중퇴자 예방 교육 및 재·편입학 추진, 중·고등학교 104개교에 713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위촉, 충북교육 열린마당에 『학생폭력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교육감님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번째, 임해수련원 활동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240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인물을.

인사업무 추진에서 그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교원 재교육에서 우리 금년 상반기 중에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국외연수, 총 1,17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장·교사 초빙제 시범실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4번에 중등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을 금년에 공개 전용으로 12명 선발을 했습니다.

51쪽,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밖에 안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열여섯번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 금년에 두번, 경북과 경남에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금년의 시험 문제 출제도 전국 공동출제로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금년에 예상 합격 인원은 100여명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52쪽요. 과학교육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여건 조성에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만 좀 열거해 보면,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 확충 91.5% 확보했습니다.

과학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초·중·고 6,921학급에 4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80회-제1차]

과학실험 보조원 확대 배치 164명 배치, 과학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정, 학교 과학관 연구학교 지정 11개 과학관 외에 5개 교를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 발명공작실 설치, 학교 과학관별 특별연구과제 제도 운영, 과학실험 폐수 저수조 설치, 충북과학교육원 이전 신축사업 계속 추진, 지난 8월 14일 신축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초·중등 과학교사 실험연수 실시 63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의 충실, 추진실적으로서 교육용 컴퓨터 보급 134개교에 2,317대 보급을 했고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초·중·고 교원 1,508대를 보급했고,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이 17개교에 630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기종 보급이 6개교에 51대, 컴퓨터 연수는 여러 과정 등 5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5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방경기대회는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실시했고, 앞으로 10월 중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학생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5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실습소에 농업계는 청주농고에 2학년

360명, 공업계는 청주기계공고하고 충북공고에 2학년 1,237명이 상반기 중에 실습을 마쳤습니다.

57쪽.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자체 직업과정 운영학교가 3개교 293명, 위탁교육과정 운영 10개교에 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개의 공공도서관에 이용자 수가 92만 914명, 대여 도서장서 수가 46만 6,335권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교양강좌나 취미교실은 유인물로 대처해 올리겠습니다.

60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사회의 열린교육체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관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수는 464교중 실시 학교수가 75%에 달하는 347교, 수강 연 인원은 3만 1,400명, 강좌수가 494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쪽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금년에 7개 단체 가입이 초·중·고 대상학생의 44.3%인 8만 8,470여명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체육 영재 육성, 62쪽에

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6학급 11종목, 271명의 체육영재를 육성하고 있고, 체육특기자 지정종목은 256교 35종목 5,007명의 지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6회 소년체전을 개최했고, 금년 5월에 제26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중·일 종합경기대회에 우리 김영세교육감이 한국 단장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수 294교외 급식학생 수는 9만 7,060명입니다.

64쪽을 봐주시죠.

금년에 신규 급식학교 지정은 21교를 지정했습니다.

중식지원 351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했고, 우유 보조급식을 1만 1,60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이전 폐쇄 대상 업소 정화 조치로써 '95년 12월 31일 한 이전 대상 업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정화 조치하고 남아있는 것이 총 4건이 남아있습니다, 4건이. 정화조치 2건을 해서요. 그 다음에 65쪽, '98년 12월 30일에 한 이전폐

쇄 업소가 남아있는 것이 거기도 13건 중에서 9건이 조치되었기 때문에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마지막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연수는 당초에 3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명만을 12박 13일동안 구주 방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은 우수한 교육행정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충북대 대학원에서 10명이 석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세번째, 정보화 시대에 대처 능력 및 실용적 전산운영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금년

[제80회-제1차]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6기에 걸쳐서 1주일간씩 193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충북상고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직급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8월까지 단재교육원 및 기타 교육원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다섯번째 학교시설은 '98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도합 5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도합 6개교를 저희들이 신설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 신설학교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으며, 다만 대안학교는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 신설학교는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이전 신축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북예술고등학교인데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 8월 24일 이전을 완료했고, 충북예술고는 8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8월 이전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에 일곱번째 소규모학교 개편은 '97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개교는 통·폐합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통·폐합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학기관에 대해서 지원현황은 72쪽에 그 기준을 사립학교는 재정결함의 보조를, 그 다음에 특수학교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학교는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6개교, 총 46개교로써 지금 지원 실적은 207억 7,200만원을 전반기에 지원했고 후반기에 188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번째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사업 확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432억원으로 교실 개축 250실 외 9개 사업을, 다음에 74쪽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 355억원으로 학교 신축 4개교, 학교이전 1개교, 교실증축 93실을, 농촌근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880억원으로 진천 이월초등학교에 33억원과 청원 미원초등학교에 55억원을, 그 다음에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기타 시설사업비 463억원으로 사택구입 및 보수 34동 외 7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청의 국·과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 참 조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별책1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의안 2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12시 15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고시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안병일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상정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821호로 '95년 12월 7일자 개정된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3항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학교 선복수 지원 후추첨제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학생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주어 그들이 가고싶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97학년도에 충주시를 시범지역으로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발 방법에서 2개의 중학교를 선복수 지원하게 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완전 무자기 추첨에 의한 배정으로 선발인원의 90%를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하게 되었으며, 시행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2%의 학생 및 학부모가 이 제도의 시행에 찬성하였습니다.

'98학년도부터 청주시와 제천시 지역 중학교 입학,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선복수 지원제를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 제천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 지지율 86.4%, 제천시 지지율 89.2%로 다수의 교육 수요자가 이 제도의 시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80회-제1차]

있는 청주시와 제천시 중학교 학교군의 학생에게 둘이상의 중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는 선복수 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지역교육장이 그 지역의 실정에 적절한 추첨 및 배병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시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시개정안은 '96년 10월 17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1996-6호 제3조 별표2의 중학교학교군의 청주시와 제천시를 추가하고 별표2에 속하는 중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둘이상의 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지역교육장이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 및 배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3항이며 그 시한은 덧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배포해 드린 관계법령 발췌문,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별표2의 충청북도 선복수지원 중학교 학교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 개정안 : 별첨2

(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5.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12시 20분)

● 의장 김광수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업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고등 보통교육과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품성으로 기능을 지닌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학교법인 청주 카톨릭학원에서 청원군 옥산면 산이리 181번지 일대 7,207평방미터의 부지에 3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당 2학급, 학급당 20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의 방향은 기존의 학과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취미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교 내에 기숙사를 설립, 교원과 학생이 숙식을 같이하면서

상시 상담을 실시하여 건전한 학생을 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카톨릭 학원에서 교직원의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천주교의 성직자, 수도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천주교의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학교가 소기의 목적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업고등학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양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
: 별첨3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2시 23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기수, 박동기 두분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기수, 박동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신설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제80회-제1차]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묵,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송병식,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 별첨2
- ▶ 양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 : 별첨3

※ 별 책 부 록

- ▶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별책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9월 10일 (수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2.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3.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교육감 제출)
3.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금일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바 있는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
주시후기고등학교설립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

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11시 03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환위원 “예”하고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교육위원 조일환입니다.

이 학군 문제는 지난해 행정예고를 했을 때에 청원서라든가 또는 소원서를 천 수백 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우리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본 선지원 후추첨에 이 중학교 배정 개혁안을 시행을 해야 될 절박한 입지에 와있다는

것 본 위원 공감합니다.

작년에 그러한 학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소지역이기 때문에 충북교육 개혁에 어느 한 부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본 위원 또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주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 입시안을 추진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하고 면밀하게 언론, 기타 유관 기관과의 업무연락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현지 내지는 작년에 소원서를 제출했던 봉명초등학교 교직원에게 문의한 바 금년에는 학부모의 작년과 같은 그러한 저항은 없고 아직도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거의가 본 학군의 시행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본 위원의 의견과 그리고 의안을 심의하는데 다소 의문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받은 자료중에 '97년 선복수 지원 후추첨제 시행을 위한 추진경과라는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9월 17일, 4월 14일 청주교육위원 김정길위원과 의견 교환 및 협조 당부, 이런 업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 교육위원들의 업무 한계

를 잘못 알고 하는 것인지, 청주교육청의 교육을 마치 청주지역에서 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에 김정길위원께만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에는 4월 15일 봉명중학교 및 한영구 교장과 협의 학급 감축 요망,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학급 감축을 하는 것은 교육장이지 학교장에게 감축을 협의하고 요망을 했다 하는 것은 표기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 6월 19일 공청회 내용 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공청회 내용은 일시와 그리고 주제를 발표로 하신 김장학관님의 내용만 간략하게 적혀있고 거기에 참석했던 토론자, 즉 김지택 교총연합회장, 그리고 유재형 봉정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문위원장의 그 토론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목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작년에 봉정초등학교에서 극구 학구조정을 내년으로 밀어달라, 또 시행을

거부하겠다는 큰 이유가 69조제3항에 교통이 특히 불편한 지역은 고려할 수도 있다, 이 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은 130회의 교통을, 회수를 증차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130회 노선중 봉정초등학교가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노선은 어느 노선이며, 몇개 노선인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교직원단체 내지는 교직 이해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청회를 할때는 흔히 교육위원이나 또는 집행청에 초청장 내지는 안내장 한장은 보냈습니다.

하물며, 본 위원들이 심의해야 할 학구조정, 중요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시행을 하면서 본 위원들에게 한편의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토론회 토론자라든가, 또는 주제발표가 안되면 여타의 방법이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이러한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하지 않고 또 토론자 선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론자를 선정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제2차]

특히, 이 부분은 청주교육청 일선에서 모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능하면은 청주교육청 일선에서, 관계관으로 계셨던 관계관계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예. 조일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정길 위원

예. 앉아서 제가 앉아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 김정길 위원

간단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말씀하시죠.

● 김정길 위원

지금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주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김정길위원과 협의를 했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못봤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6월 19일날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시교육청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전에 4월 달인가에 시에서 다시 금년에 작년에 못한 학구 조정을 시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부작용 없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잘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월 19일 날인가 그날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학부모들 전체의 공청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조금 전에 조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공청회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청소년 수련회관 기공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다시 이제 갖다가 오니까 다 끝이 났는데 그때 제가 집행청에, 청주시교육청에다가 그날 일어난 회의록, 발언한 것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을 좀 연락을 해달라 하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며칠 전에 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시행

에 따른 유인물을 보니까 7월 31일날 복수 지원 후추첨제에 대한 입학전형위원회가 있었고, 8월 4일날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의안을 상정을 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상태를 그때 그 6월 19일날 그 당시에만 알고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조일환 위원님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 추진사항은 모른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대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그 의안이 있으면은 사전에, 뭐 출신지역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조일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의안 상정하는 거 공문 카피(Copy) 한부 사본해가지고 주고, 또 우리 교육위원들 전체 복사해가지고 보내줘도 됩니다 이것은. 되는데, 아무런 사전 요구도 없이 이렇게 이 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면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일환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청회나 어떤 행사에 전체 위원님을 초청하고 다 알려드리면 좋습니다만은 다른 지금 시·군 교육청들도 그 관찰 출신지역 교육위원님들한테만 협의를 하지 전체적인 교육위원들한테 협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조일환위원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이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안 상정될 때까지 다 참여를 하고 관여를 했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일환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수**

잘 알았습니다.

사무 추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어서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하신 조일환위원님께서 청주시교육청에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등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개괄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더 자세한 것은 그 다음에 청주시교육청에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중등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중등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충청북도중학구학교군에 관한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에 대한 조일환위원님의 질의 말씀과 또 김정길위원님의 도움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서는 직접 일을 추진한 청주시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만은 사전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아마 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의 실무국장으로서 추진 경과라든가 아는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올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서면이나 또 보완을 해 올리도록 양해 말씀을 우선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사무국을 통해서 김정길위원께서 오늘 10시 반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참해서 여기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출석요구가 기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수

어떻게 그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 조일환 위원

아침에도 여기 저희가.....

● 의장 김광수

우선 이렇게 진행하시고.....

● 조일환 위원

예.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소상한 부분은 청주청의 관계관계서 와 해주시고.....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우선 여러가지 다섯 항목을 말씀을 하셨으나, 거두절미하고 우선 요지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교육의 조례라든가, 고시 등등 관여하는 교육위원님들에게 그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좀 소상히 말씀을 안드리고, 또 중요한 공청회 때에 또 초대장이라든가 안내장도 안한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 첫번째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김정길위원님께만 4월 달에 협의를 하고, 기타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말씀 드려서 전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욱더 이것이 심도있게 다뤄지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정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시·군에, 청주시면 청주시 김정길위원님, 충주 같으면 조일환위원님, 주로 협의드리고 교육의 문제를 협의했던 관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조일환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 저희들이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한영구교장과의 감축을 요청했다는, 그것은 오기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오기죠?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그럴 수도 없고, 교육장이 결정해서 청주시에 학생의 수급에 따라서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늘릴 것은 늘리는 것이지 교장에게, 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이고, 이렇게 주는 것을 실패파악을 했지 학교장에게 요청한 것은 오기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6월 19일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그 공청회 발표자 세분만 있고 토론 내용이 알 수가 없다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토론내용을 조위원님께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69조3항에 교통편의가 130회 증가되었는데 봉정초등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몇회선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좀더 조사해서 그 130회가 증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봉정초등학교 학군에서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몇회선인가, 몇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일환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육에 대한 공청회에서 초청장, 안내장, 또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쭙보셨는데 아까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저희들이 공청회가 있으니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통지를 못한 불찰을 인정하고, 그날 김정길위원님은 참여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청주시에 관여하는 김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인사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다음부터 이런 공청회나 이런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좀 조일환위원님께서 환기를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잊지말고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들께 안내문을 드리도록, 또 좋은 고견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을 못드린 부분, 그런 것은 서면으로 좀 대신 올릴까, 양해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예

● 조일환 위원

첫번째 제가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런지, 제가 제일 처음에 1항으로 질문드린 것

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에

● **조일환 위원**

평상적으로 각교육청, 또는 본청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일일이 교육위원회에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저도 청구청으로부터 일주일에 주일에 행사, 주요행사를 팩스로 받고 또 미미한 부분은 유선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구조정 문제는 그런 차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상 업무를 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청이면 청주청의 해당 위원이 가까이 계시고, 또 업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항은 공문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청주교육위원 김정길, 이 어휘 자체의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이지, 다만, 청주 출신 교육위원이란 말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사안으로 봐서 이 안이 특수한 사항이고, 작년에 뜨거운 감자로 학부모 대 교육청이 몇 달간을 줄다리기한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교육위원 전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서면질문 좋습니다, 편리하고. 그러나 그렇게 받는 그 질문은 답변은 의결에 하나 도움이 안됩니다.

분명히 어저께 김정길위원께서 통고를 했고, 아침에도 과장님께서 위원회실에 와서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자료를 가지고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분이 와서 여기서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우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 딱 외람됩니다만은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을, 그런 것, 지금 같이 참여하는 시대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겼을 때는 귀뜸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어찌 이런 것 보고도 없느냐, 또 그때 벌써 공청회가?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어제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좀 저 위원이 청주시교육청에 두분이 출석요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했는데 안되신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조위원님, 저희들에게 채적도 주시고 그때그때 귀뜸도 해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나갔을 때 저희 교육행정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거듭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가만, 김정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김정길 위원

됐습니다.

● 의장 김광수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학무국장 출석요구 건에 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이것은 우리 회의 내부 관계입니다만은 제가 접수가 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또 그럼 어떻습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답변을 듣기위해서 청주청에 보충질의를 줘.....

● 조일환 위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또 청주청에서도 성의있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아침에 두분께서 오셔서 위원회실에서

대략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 분들이.....

● 교육감 김영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정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고,

● 조일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감 김영세

예, 절차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우리 초등교육국장이 당시에 청주시 학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출석요구가 돼서 앉아 있는 초등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 조일환 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이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 의장 김광수

그럼 초등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진행상황을 잘 계시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초등교육국장 민명국입니다.

제가 금년 전반기에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추진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질문 내용하신 중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을 말씀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 중에서 봉명중학교의 학급감축 요망이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학교에 현장을 살펴보러 제가 담당자들과 같이 갔을 때에 학교장으로 부터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학급이 감축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받은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학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봉명중학교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의견이 문서로 청주교육청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해에 반대했던 학부형님들 중에서 봉명중학교에 진학한 학부형님들의 입장은 전년도에 반대하던 입장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진학해서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고 보니까 다른 중학교하고 비교할 때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느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발표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부형을 대표해서, 또 특히 반대하시던 봉정초등

학교의 학부형을 참여를 시켰고, 교직원을 대표해서 교총회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지역 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청주시 위원이신 김정길위원을 이렇게 모시는, 이렇게 기준을 했고, 방청자들은 이 수요자의 요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청주시내 각학교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사안이 봉정초등학교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의 경우도 지원과 관계없이 이미 배정된 학생이 용암지역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봉정학교 인근에 있는 봉명초등학교나, 운천초등학교, 한별초등학교에서는 지난 해에 봉정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의 반대에 대해서 올해도 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하는 이런 기회를 일부 보이고 해서 전학교의 학부형님을 고무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 교육위원님께 이런 중요한 협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 당시의 학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편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청주청에서 지난 해에 4월과 7월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노선도를 그려서 이 노선에 학생이 통학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불

법운행되는 봉고차나 또는 개인 승용차가 통행을 함으로 해서 학생의 안전과 교통 혼잡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문서로 요청을 했고, 청주시 부시장님께서 시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실무 검토진에게 배려 지시를 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회선이 늘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노선은 4개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서청주에서 봉정초등학교 앞하고 그 대로, 럭키에서 나오는 그 대로를 거쳐서 대성중학으로, 농산물센타 뒤로 그리해서 북쪽으로 해서 울랑, 사창쪽으로 가는 대성중학을 거쳐서 가는 그 노선 하나하고, 또 봉명사거리에서 서청주 쪽에서 와서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로 해서 시내 도심으로 오는 그 노선하고, 또 하나는 서청주 쪽에서 봉정 학생들이 많이 다녔으면 하는 그런 중앙노선으로 운천대교, 구름다리, 고가다리 그리틀 넘어서 시내로 오는 노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암지역과 이 쪽에 분평 산남지역으로 통행하는 노선, 여기에 대한 증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운천에 그 고가도로를 건너는 노선은 운행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증설을 못하겠다 하는 회답을 받고, 나머지 3개 노선에 관해서는, 노선별로는 제가 지금 말

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대로 약 한 130회선이 증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시간 대로 봐서는 하루종일, 운행 전체시간 중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등교시간에, 하교시간에, 이런 것은 그 버스회사 별로 또 조합하는 노선별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임이 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 김정길 위원

제가 조금 몇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의장님 제가 앉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예

● 김정길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또 번거롭게 나오시기도 그렇고 해서요. 어제 말이죠. 저 의사국장님, 어제 분명히 제가 청주시교육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관계자료를 전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배분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출석요구서가 안돼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 직에 있다가 다른 직으로 옮겨가지고 그 업무를

모른다 해가지고 다른 직으로 옮기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제가 하루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더 추진된 상황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10시 반까지 나와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의사국에서 출두통지서를 내든지, 전화통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와야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전화 통보가 됐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료를 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자세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받은 분들 한 분도 안계세요. 와가지고 잘했다고 말이야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고, 여론 조사에 보면은 86.4%가 청주에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형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6.4%라는 이 수치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으며, 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청주시에 비율이 86.4% 나왔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의안을 통과를 했을 때 학부형

들의 반발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안됐을 때,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학군조정이라는 게 말이죠, 수요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군조정을 하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70명이고 80명이고 몇씩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과장이 시행청에 와서 분명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하루 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전에 출석요구나 이런 것을 하면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온다는 이유가 뭐니까?

그래가지고 전임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 의장 김광수

김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의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조일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의안을 진지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의 상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충북교육 발전에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 초등국장님께서 소상히 해주셨고, 또 중등국장님께서도 열성적으로 성의있게 해주셨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4개항에 대한 질의는 답변한 현재의 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의 청주청의 답변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정길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김정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길 위원

그 여론조사에서요, 그 86.4%가 나왔다는 근거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당시에 진행을 맡아 보셨던 초등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학생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요자의 의견 조사한 내용을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전원, 그 중에는 청원군 지역에서 청주시내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학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작년에 진학을 했었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교당 몇명씩 배정했는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설문을 제공해서 학교를 통해서 수집해서 총 집계를 한 그 찬성쪽으로 집계된 비율이 지금 보고드린 수치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견해는 어땠고, 학생 중에도 초등, 중등, 또 학부모, 교직원 에 대한 반응 통계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청주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양해되시면.....

● 김정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예

● 김정길 위원

이 진행과정을 여론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그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문서로도 남아 있을 겁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예

● 김정길 위원

그것을 좀 전부 추진좀 하셔가지고 한부를 복사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셔도 좋겠고, 저한테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그럼 말씀.....

● 의장 김광수

되셨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그러시면은 이 자세한 내용은 본도 교육감님께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써 조일환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또 김정길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이나 다른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12시 00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질의 및 답변을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김정길 위원

제가 앉아서 그냥.....

● 의장 김광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서 그 관계관들을 만나 보니까 참 그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거기서 걱정을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수용인원이 한 340명,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지금 충북도내 연간 그 탈락 학생들이 약 천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계획을 물어보니까 충남북 학생들을 수용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집행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아마 협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충북의 문제학생들이나 탈락학생들을 먼저 수용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충남 학생을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학교가 전남에 있다는데 수용비율이 5대 1이다, 7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충북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설립을 해놓고 우리 충북 학생들을 다 수용

을 못하고 외지 학생들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수용관계, 그것을 한번 집행청에다 말씀을 좀 드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또 물어보니까 가건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철수를 하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시행청하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건물을 바로 지어서 가까운 예산이 단 얼마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영세

그 답변을 내가 즉석에서 해드리죠.

● 의장 김광수

예?

● 교육감 김영세

답변을 즉석에서 해드리죠.

● 의장 김광수

아니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더 질문 받으시고, 어떻게 조일환위원장님.....

● 조일환 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 기타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청하거나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어저께 현지에 갔을 때 『얼어 먹을 수 있는 기운만 있어도 감사해라』 하는 그러한 천주교에서의 사랑의 논리,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서 솔선해서 해야 될 소위 청소년 선도 내지는 폭력, 이런 여러가지 문제학생의 교육을 전담해 주겠다는 그러한 고마운 청주교구청 주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어제 현장에는 종합건축 사무소에 건축기사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특히 저희 나라에 사랑의 실천에 대부적인 오웅진신부님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육청 집행청이나 또 작은 힘이나마 교육위원의 입지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만,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일단 의안으로 상정된 이상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상정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어떤 일반 안건과는 달리 초행정적으로 이것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은 아직 설계도 안 끝난 교육시설이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 또 건축을 행정관리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실무자의 그 곤혹스러운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느 지역은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이 양업고등학교는 특수한 종교적인 이러한 특수한 사업으로 이것은 목인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감님께서서는 그 윤병훈신부도 15년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했고, 또 특히 청주교구 40주년 기념행사라는 이것 때문에 내년엔 '98년 3월의 개교를 늦출 수 없다는 그러한 종교계의 입장도 있습니다.

해서, 교육감님께서서는 본도의 문제학생이 하루빨리 그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초행정력과 또 재정력으로 특별히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또 다른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이경윤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이경윤위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윤 위원

어저께 양업고등학교 설립 현장을 가서 살펴보았더니만은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정말로 눈물겹게 고마운 분들이구나 하

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거기 목적을 살펴보니까 중학교 졸업생 및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을 수용해서 학생의 취미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회에서 버림받는 학생들을 다시 사람다운 학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상당히 교육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략 어떻게 청주고교구청과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교육감님이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영세

예 제가 하죠.

● 의장 김광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영세

우리 저 대안학교 제도이후 우리 충북에서 가칭 양업고등학교라고 해서 설립을 하

게 되는 그 취지는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잘 아셔서 동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단지, 이것을 조금 내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취지는 지금 학생 폭력사고가 이렇게 나고, 탈락학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 교육관으로는 국립학교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과연 담당해서 헌신적으로 24시간 그 학생들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원이 있느냐, 이게 자신이 안섰던 게요. 그러던 차에 카톨릭교회의 성직자가, 그 분이 신부님이 매괴상고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이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한번 그런 사업을 맡아 보겠다. 그래 내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테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테니 의욕을 가져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반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2년을 그간에 끝었던 겁니다.

이 지금 시기적으로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직자일 것 같으면은 그 학생들을 자신있게 끌고갈 거 아니겠느냐, 그래

[제80회-제2차]

서 카톨릭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교사가 돼서 그 학생하고 24시간 같이 숙식을 하게 돼 있어요, 기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분이 아니고 성직자들이 맡아서 할 적에는 거기에 입학할 학생들이 얼마나 원해서 같거나 문제지, 과연 그 안에 들어가면 지도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나 지금 현재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학생을 성직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충남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 충북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충남자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상에 충북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와야 받지, 충북도내에 충북교육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에 해당이 안됩니다.

분명히 도내 학생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의욕을 가진다면 그 학생들이 충북으로 이주를 해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충북학생의 국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이게 정식 학교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 학교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설립까지는 우리가 일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재정은 우리 도 교육국 재원이

아니라 사립학교로서 설립자 재원으로 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여의치 않을 적에는 정식 사립학교가 운영이 안될 때 그 인건비 보조를 비롯해서 운영비 보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운영비, 앞으로 운영상의 보조를 하지 그 학교를 설립해서 건축에 관한 과정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특별목적기탁금이 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2억을 보내주었고, 도지사가 1억을 보내줘서 그 자금을 3억을 지금 내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만은 정식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서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 이외는 우리 도교육 재원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발족을 빨리 해달라는 게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절기에 그 학교만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학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부실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하여튼 공정은 밟아가되 개교만은 해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따릅니다.

지금 주민의 동태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교를 해줘야 이 학교가 성숙된다. 이런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재원은 설립재원은 우리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립학교 설립자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리, 사실은 인가 절차도 완전히 교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인가를 내줘야 되겠지만서도 이 학교 취지만은 우리가, 지금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초행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가를 해주고서 그 다음에 정히 학습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한다면 그때야 중단시킬지언정 그렇지 않고 학습여건이 성숙된다면은 인가를 하고 개교시켜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의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하고 말함)

● 의장 김광수

보충질의 뭐 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예. 간단히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예. 그러시면 이기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지금 양업고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많은

애기를 듣고, 익히 다 상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참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군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동의도 우리가 구했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은, 만의 하나 이해 못하는 지역민이 있으면 이것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청이나 학교 설립하는 그 천주교 재단에 이해 못하는 지역민들을 정말 충분히 홍보해서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불편한 일이 없게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광수

집행청에서는 십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영세

예. 이게 발족 전에는 다 염려들 하고 주민들도 여러가지 염려를 하는데 사실은 발족되고 나면은 호응이 올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철저하게 성직자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지역사회에 절대 해독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갈 일도 없고, 기숙사에서 24시간 생활시키는데 전부 그 성직자들이 인원을 좀 많이 늘릴래도 철저하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제80회-제2차]

지금 인원을 많이 못 늘리고, 또 실제로 지원해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자 주임신부가 지금 일부러 주민계도도 하기 위해서 옥산 성당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옥산 성당 신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이 그 지역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교화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또 그쪽 계통에다가 많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드릴 것입니다.

● 의장 김광수

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해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7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심의와 신설학교 설립예정지 방문 등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폐회)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공보담당관 김홍목,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송병식,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별 책 부 록

- ▶ 서면답변서 : 별책2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80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7.9.9.~9.10.(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97.9.9.(화)</p> <p>10:00</p> <p>11:00</p> <p>14:00</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p> <p><input type="checkbox"/> 개회식</p> <p>[제1차 본회의 개의]</p> <p>1. 제8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9. 9. ~ 9.10.(2일간)</p> <p>2.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감 제출)</p> <p>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제안설명)</p> <p>4.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제안설명)</p> <p>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p> <p>[제1차 본회의 산회]</p> <p><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p> <p>· 양업고등학교 설립예정지 : 청원군옥산면환회리 소재</p>	
<p>9.10. (수)</p> <p>11:00</p>	<p>[제2차 본회의 개의]</p> <p>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p> <p>2.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p> <p>3. 기타안건 처리</p> <p>[제2차 본회의 산회]</p> <p>※ 폐 회</p>	

(별첨 2)

의안번호	제 80-1 호
의 결 년 월 일	1997. . . (제 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년 월 일	1997. 8 . 20.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의안 번호	80 - 1
----------	--------

제출년월일 : 1997. 8. 2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3항(대통령령 제14821호, '95. 12. 7)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해 충주시지역을 시범 실시한 결과 92%이상의 학생이 찬성하여 1998학년도부터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본 제도가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청주시와 제천시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학교선택권을 확대 부여토록 하기위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1996-6호, 1996. 10. 17) 제3조의 별표2 지역에 청주와 제천을 추가함

개정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3항

고 시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선복수지원 여론조사 결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2] 충청북도선복수지원중학교학교군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충청북도선복수지원중학교학교군

선복수지원 중학교학교군 일람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비고
			지역명	해당지역	
청주시	제1학교군	청주시 남동중, 청주시 광호중, 청주시 세운중, 청주시 신일중, 청주시 남양중, 청주시 용원중	청주시	문화북1가남2가동, 서운남1가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대성동, 모충동, 사직제2동, 영운동, 금천동, 용남명암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사창동(1-6, 11-19, 23, 25-28, 39-41, 46동), 성화개신죽림동(1, 2, 4, 6-12, 18-25, 28, 29동), 산미분장동, 수곡동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효촌리, 쌍수리, 신송리, 가중리, 가산리, 화당리, 고은리	
			남이면	팔봉리, 식실리, 식관리, 가마리,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척북리, 사동리, 척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구암리, 상밭리	
			낭성면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가덕면	상대리	
			문의면	동동리(위등골)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시 주성남양여중, 청주시 대중남양여중, 청주시 대봉울양명중	청주시	영동북2가3가동, 사직제1동, 운천신봉동, 수동, 우암동, 강서제2동, 사창동(8-10, 20-22, 31-35, 38, 42-45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울양사천동, 봉명제1동(18-20, 22, 24동제외), 봉명제2송정동(1, 2동제외), 오근장동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구성리, 국동리, 원통리(숲안, 청애원, 통천), 은곡리1구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 청사법대속경덕	청주시	강서제1동(12, 26동제외), 북대제1동, 가정동, 북대제2동, 성화개신죽림동(3, 5, 13-17, 26, 27동), 봉명제1동(18-20, 22, 24동), 봉명제2송정동(1, 2동), 사창동(7, 24, 29, 30, 36, 37, 47동)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충주시	충주시 학교군	충주시 충미덕중, 충주북여중, 충주여중, 충주예성중, 충주중앙중	충주시	동지역	
			충주시 이류면	분리, 완오리, 검단리, 장성리, 만정리, 두정리, 탄용리, 매현리, 문주리	
			가금면	누암리, 창동리	
			살미면	전지역	
			동량면	화암리, 서운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제2조 (생략)</p> <p>제3조 (지원 및 배정) ① 중학교 학교군내의 추첨방법은 지역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행하되, 별표2의 중학교학교군내 중 학교에 입학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2이상 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입학 지원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p> <p>②항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생략)</p> <p><u>[별표2] 충청북도선복수지원중학교학교군</u> (별지와 같음)</p>	<p>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지원및배정) ①항 (현행과 같음)</p> <p>②항 (현행과 같음)</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부 칙 (현행과 같음)</p> <p><u>[별표2] 충청북도선복수지원중학교학교군</u> (별지와 같음)</p>

충청북도선복수지원중학교학교군

【 별표 2 】

선복수지원 중학교학교군 일람표

시· 군· 별	현			행			정			비고
	학교군(구)	중학교명	지역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학교군(구)	중학교명	지역명	
				학교군(구)	해	당				
청주 시	청주 제1학교군	(신)	지역명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청주시	중화북1가남2가동, 서운남1가동, 시문동, 남주동, 석교동, 학대성동, 모충동, 사직제2동, 영운동, 근찬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사창동(1-6, 11-19, 23, 25-28, 39-41, 46동), 성화개신죽림동(1, 2, 4, 6-12, 18-25, 28, 29동), 산미분장동, 수곡동
										송암리, 초촌리, 쌍수리, 신송리, 기중리, 가산리, 화방리, 고은리
청주 시	청주 제2학교군	지역명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청주시	판봉리, 석실리, 석판리, 가마리,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철부리, 사동리, 척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구암리, 상발리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청주 시	청주 제2학교군	지역명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청주시	상대리	
									동동리(위동굴)	
청주 시	청주 제2학교군	지역명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청주시	영동북2가3가동, 사직제1동, 운천신봉동, 수동, 우암동, 강서제2동, 사창동(8-10, 20-22, 31-35, 38, 42-45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울랑사천동, 봉명제1동(18-20, 22, 24동 제외), 봉명제2동(정동(1, 2통제외), 오근장동	
									목방리, 구성리, 국동리, 원통리(숲안, 청애원, 통천), 은곡리구	

원		행		정		안		
시, 군, 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지역명	중학교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지역명	해당지역			지역명	해당지역
		(신)	설)		청주시	충대합중중 시원북대합중중 출사부속경덕	청주시	강서제1동(12, 26통제외), 북대제1동, 가경동, 북대제2동, 성화개신죽림동(3, 5, 13-17, 26, 27통), 봉명제1동(18-20, 22, 24통), 봉명제2상정동(1, 2통), 사창동(7, 24, 29, 30, 36, 37, 47통)
충주시	충하교군	충중중 충일북대합중 충주북대합중 충주예성중 충주중앙중 충주중	동지역 본리, 완오리, 검단리, 장성리, 만정리, 두성리, 탄용리, 매현리, 문주리 누암리, 창동리 살미면 전지역 동량면 화암리, 서운리 실)		충원군 강내면	(현행과 (현행과	충원군 강내면	연정리
충주시	충하교군	(신)	실)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동지역(영천1동 10통4만, 11통3만 제외) 미당리, 명도1리 황산리, 사곡리, 진리, 위림리, 월림리 양화리, 동막리, 대장리, 구룡리, 적덕리, 중천리, 포천리, 월굴리(6만) 장선리, 부산리, 황석리, 후산리 도학2리, 무도리 삼곡리, 고양리, 가평리, 영천리, 김산리

부포1, 2리, 동회동, 동회동, 동회동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4821호, 1995. 12. 7)

제69조 (입학 등의 허가) ③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선복수지원 여론조사 결과

1.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

중 학 군	청주시	제천시
조사인원	36,361	4,318
찬 성	31,430	3,852
비 율	86.4%	89.2%

2. 문 제 점 :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통불편을 이유로 특정학교(봉명중)에 선배정 기득권 요구

(별첨 3)

의안 번호	제 80-2 호
의결년월일	1997. . . . (제 회)

양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8. 28.

양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

의안 번호	80 - 2
----------	--------

제출년월일 : 1997. 8.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중학교졸업생 및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수용
- 건전한 품성과 기능을 지닌 사회인 육성
- 고등보통교육 실시

□ 주요내역

- 학교명 : 양업고등학교(良業高等學校)
- 설립자 : 학교법인 청주카톨릭학원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번지
- 개교예정일 : 1998. 3. 1.
- 학급 및 학생수 : 학년당 2학급(전학년 6학급) - 남·여 공학
학급당 20명(전학년 120명)
- 학교운영방향
 - 학생의 취미와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로 학생의 욕구충족 및 소질계발육성
 - 교원과 학생이 숙식을 같이하면서 상시 상담제를 실시하여 인성교육실시
- 교원확보방안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천주교회 성직자, 수도자
- 부지확보계획
 - 기 준 : 6,700㎡
 - 확보계획 : 7,207㎡(3,630㎡ 기확보)

- 시설확보계획 : 덧붙임
- 소요예산 : 3,376백만원
 - '97년 : 1,272백만원
 - '98년 : 2,067백만원
 - '99년 : 37백만원
- 소요재원확보방안 : 자체후원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

□ 참고사항

- 위치도 및 지적도 : 덧붙임
- 근거 법령 발췌분 : 덧붙임

연도별 시설확보 및 투자계획

0 시설확보계획

(면적단위 : m²)

구 분	총 계		'97		'98		'99		비고
	실수	면 적	실수	면 적	실수	면 적	실수	면 적	
보 통 교 실	6	360	2	120	4	240			
관 리 실	4	240	3	180	1	60			
특별교실및 특수활동실	9	600	4	300	5	300			
보건위생실및기타시설	12	570	5	210	7	360			
기 숙 사	1동	1,233			1동	1,233			
계		3,003		810		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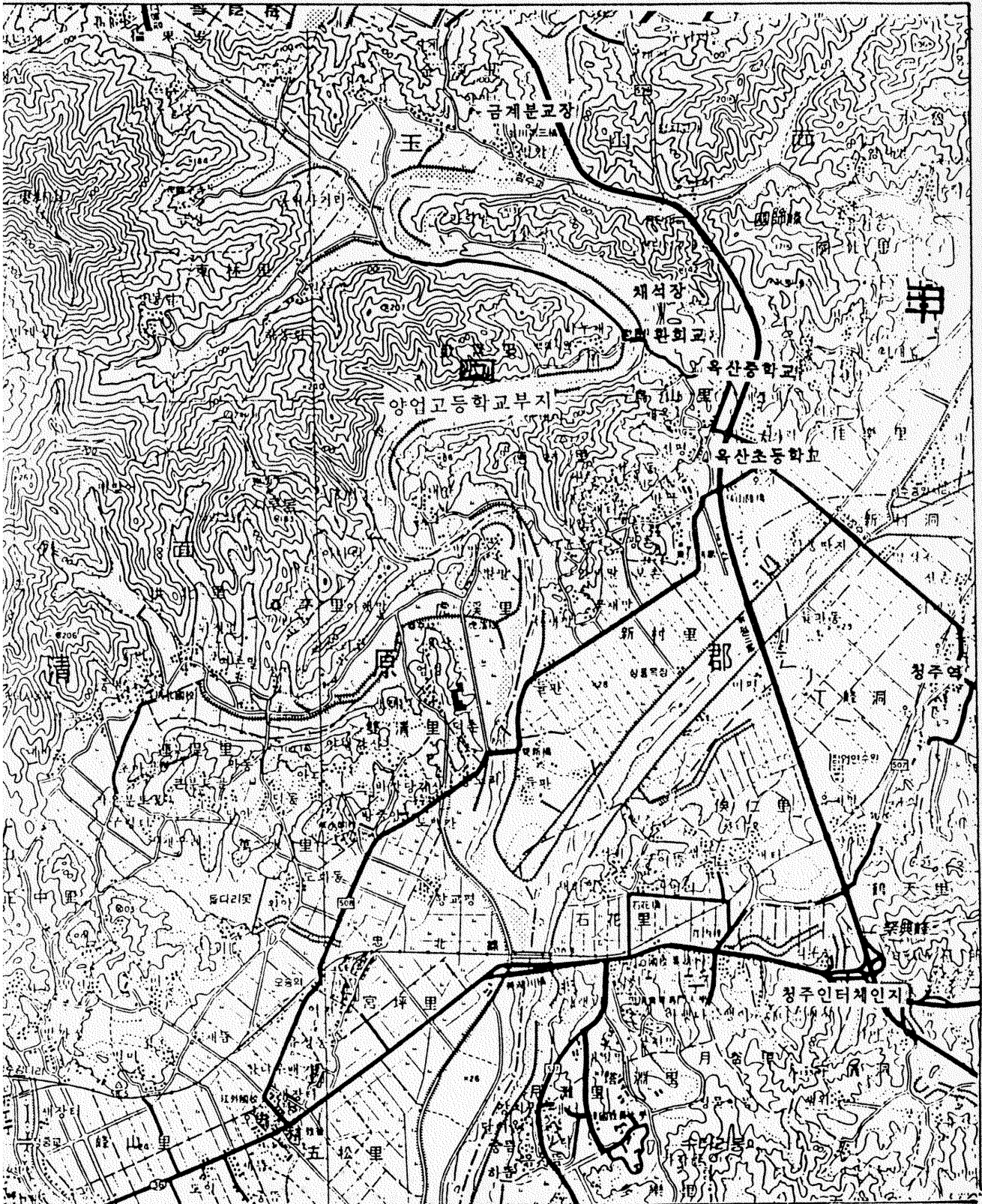
0 소요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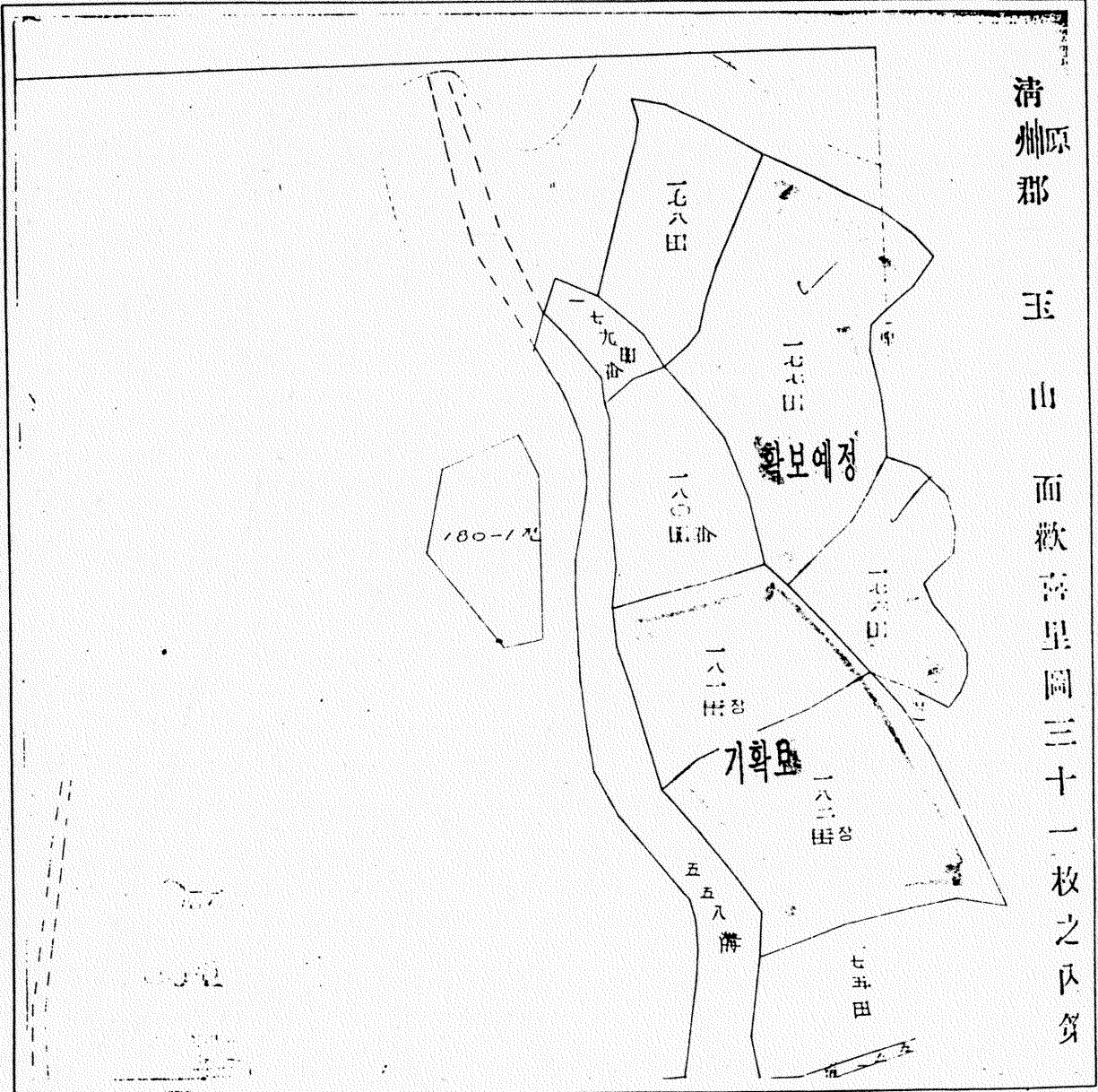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97	'98	'99	비고
부 지	527	527			
건 물	2,576	588	1,988		
토목 및 기타	273	157	79	37	
계	3,376	1,272	2,067	37	

※ 부지매입비 527백만원 중 천주교구재단에서 기 매입 증여한 420백만원(3,630m²)포함.

양업고등학교 위치도



양업고등학교 지적도



근거법령 발췌분

교육법

제82조 제2항(설립자)

법인(法人)또는 사인(私人)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개방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4. 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